

朴정부 '공약 가계부' 지방 핵심공약 다 빠졌다

신규 사업 '0'… 80조 중 20조만 반영

새누리 지도부 "SOC 꼭 반영해야"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공약 가계부'가 27일 새누리당 지도부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공약 가계부에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뉴스타파 2차 7명 발표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7일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밝힌 명단에는 활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자 부회장 부부, 이덕규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플랜드 차 사장을 포함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후 1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4개 대기업 전·현 대표와 임원 등 7명의 명단을 담은 국제탐사 보도언론인협회(ICCIJ)와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2차 명단을 발표했다.

뉴스타파가 지난 22일에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 5명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발표함으로써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 1, 2차 발표를 통해 재벌 기업과 오너, 임원급들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례가 속속 공개됨에 따라 검찰의 CJ그룹이 재현 회장 수사와 맞물리며 재벌에 대한 비판론도 확산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는 2008년 10월 2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 그룹(WIDE GATE GROUP LIMITED)'이란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국세청은 뉴스타파의 이번 2차 명단 발표에 대해 "그동안 벌여 온 역외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한 추적과 병행해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중 긴밀 공조 北 문제 풀어야"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한·중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

/연합뉴스

LH 빛그린산단 '채권보상' 토지소유주 반발

자금난 이유… 보상을 절반도 못미쳐 단지조성 차질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빛그린산단지 내 보상 토지에 대해 현금이 아닌 '채권보상'을 해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 보상을 50%를 높일아 산단지 조성 계획의 차질이 우려된다.

27일 광주시와 LH 빛그린사업단 등에 따르면 LH 빛그린사업단은 자금난으로 중단됐던 빛그린산단지 사업을 재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토지소유주 1546명에 대한 보상에 착수했다. LH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은

현금 보상을 하고, 올 1월부터 이달 말까지는 5년 만기 채권보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들이 채권보상을 거려면서 현재까지 전체 토지소유주의 46.2%인 714명만이 보상을 받았다. 채권보상을 받은 토지소유주들은 LH 채권의 만기와 도래하는 5년 후에 채권 이자가 더해진 현금을 받게 된다. 다만, 토지소유주들이 당장 채권을 현금화하려면 할인(증권사 할인율 2% 가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서는 채권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H는 8월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2차례 협의보상을 한 뒤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LH는 내년 3월 착공해 2018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빛그린 산단지는 6069억원이 투입돼 광주 광산구와 학평군 일대 4.08㎢에 조성되며, 광산업, 디지털 정보가전, 자동차산업, 첨단부품소재, 생물·의약 등 최첨단 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증개 - 토지 건물

- 소재지 : 광산구 산정동
- 면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시목 : 잡종지
- 입지조건 : 대형차량진입 가능
- 허용용도 :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 면적(분할가능) 및 기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 삼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권장 용도 : 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매매 전문

- ★북구 전대 상대·농대 1층, 신축 4층, 품. 14.17㎡(주택있음)
월수익 500만, 매기 5억 9천만(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북구 전대 정문 1층, 신축 4층, 품. 16개(주택 40평)
월수익 750만, 매기 8억 4천만(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북구 전대 정문 1층, 신축 4층, 품. 21개(주택전환)
월수익 750만, 매기 8억 8천만(엘리베이터,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서구 쌍촌동 운천역 2층, 신축 3층, 품. 8개(주택있음)
월수익 280만, 매기 5억 2천(보 2천, 월 1억 2천)

- ★서구 쌍촌동 신축 4층, 월·투룸 14개(주택있음)
매기 6억 9천만(보 3천, 월 1억 2천)

- ★북구 삼각동 신축 4층, 월·투룸 11개(주택있음) 코너, 최고 위치 월수익 330만(보 250만, 월 1억 2천) 매기 6억 5천만

- ☆상가 대입 1층, 수원지구 대방 5동 후문 59㎡
(보3천, 월10만) 모든업종가능

- ☆상가 대입 3층, 수원지구 모아빌 APT 150㎡
(보1천, 월 90만) 층지업주, 시비없음

- ☆상가대입 1층, 수원지구 롯데마트, 영화관 300세대 대방 5차 APT 후문 59㎡ 매기 3억 6천, 임대(보 3천, 월 150만)

- ☆상가 대입 1층, 수원지구 신현운행 뒤 300세대 모아빌 APT 후문 3층 280㎡ 매기 3억 2천(보 2천만, 월 200만, 월 5천만) 학원, 병원, 사무실적립

- ☆상가대입 1층 4개, 수원지구 대방 1차 APT 정문 대지 304㎡ 매기 6억 3천(보 8천만, 월 360만, 월 2억 5천만)

- ☆상가대입 1층, 수원지구 대성베르힐 대지 304㎡ 매기 7억(보 1억 3천만, 월 4억)

독서실 급 임대

- 수원지구 3천세대 모아빌 APT 1층, 품. 91㎡ 신축,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 5천만, 월 250만, 시비인간있음)

062) 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동(국민은행, LG전자앞)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중심상권 2층건물 매매 18억(보1.5억 월 910만 수익)
- ▷월간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7억
-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1300㎡, 건400㎡)
보2천 월3백만

대지/전답

- ▷담양군 금성면 토지 5,500㎡(1,670평) 개발허가, 기반 시설 완비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창동 창고용지(생산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수익형 구분점포

- ▷첨단 매파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 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복층 가눙 1,2층 점포 400㎡, 710㎡ 임대 월 1,200만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 1,200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 973-0045 010-5536-0382

광주·전남 노인 자살률 가장 낮다

농촌지역 개발 자살률 높여

광주와 전남지역의 노인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를 제외하면 전남의 노인 자살자 수는 253.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으며, 광주는 287.6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노인 자살률은 농촌지역이 높았으며, 특히 농촌에서도 급격한 지역개발이 이뤄졌거나 구제역, 폭우, 폭설 등 자연 재해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많은 곳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노인 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요인 연구'는 2006~2010년 만65세 이상 노인 자살자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6~2010년까지 5년간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살펴보면 충남이 5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528.5명, 충북이 477.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대전이 406.5명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가장 높아 대전·충청권 지역

이 권역별로는 자살률이 최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노인 자살률은 377.6명이며, 자살률이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도(252.5명)였고 전남(253.7명), 광주(287.6명), 서울(297.9명) 등의 순이었다.

충청권과 강원 지역의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2000년대부터 급격히 진행된 지역개발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기반을 잡고 살아온 노인의 경제활동에 타격을 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의 자연재해도 노인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남지역의 낮은 자살률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노인 자살은 지역에서 삶의 기반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날 때 증가한다"면서 "전남지역 노인들은 비교적 자살이 많은 지역에 나타나는 특성이 약한 편이다"고 말했다.

이후 지표들과 SNS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결합해 자살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를 2010년 자살 통계에 적용한 결과 거의 일치하는 그래프를 얻었다.

김도관 교수팀은 다음 소프트와 공동으로 자살예보 시스템을 출시했다. 그동안 자살률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요소인 물가, 실업률, 주가지수, 기온, 유명인의 자살에 더해 이번 시스템에서는 약 1억5000여만 건의 SNS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결합됐다.

먼저 김도관 교수팀은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살통계와 SNS상에서 자살이나 자살 관련 단어의 빈도를 비교해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했다.

이어 예전에 알려진 사회, 경제, 기

중央공인중개사

♣건물매매♣

- 충장로 총장
피출소 인근
대지 700㎡
건물 3,000㎡
매매가
상당후 결정

대형 브랜드 매장 적합

♣대지.전.답♣

-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접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